

연세대학교 2005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변형문제

오르비 논술팀 / Peroz Aramis

제시문 (가)

노인, 즉 전성기를 지난 사람의 성격이란 젊은이의 성격과 정반대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법이다. 그들은 여러 해를 살았고, 사는 동안 속은 적도 많고 실수도 많이 저질렀으며,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면 만사가 뒤죽박죽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그 결과 노인들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으며 모든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다. 그들은 '생각'은 하지만 '인식'은 하지 못하고, 늘 미적거리다 보니 '아마도', '그럴 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달면서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노인들은 냉소적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의 가장 나쁜 점만을 보는 것이다. 게다가 노인들의 인생경험은 남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남을 못 믿으니 의심이 많다. 따라서 그들은 열렬히 사랑하지도 심하게 증오하지도 않으며, 편견이 이끄는 대로 언젠가는 증오할 것처럼 사랑하며 언젠가는 사랑할 것처럼 증오한다. 노인들은 인생살이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속이 좁고, 그들의 욕망은 그저 그들을 살아남게 하는 것보다 더 고매하거나 더 비범한 것을 겨냥하는 법이 없다. 노인들에게 돈은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돈이란 것이 얼마나 벌기 어렵고 써버리기 쉬운지를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돈에 관한 인색하다. 노인들은 겁쟁이들이고 늘 미리 걱정하며 산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과는 달리 그들의 기질은 차디차다. 노년이 비겁함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니, 이들은 두려움으로 차갑게 얼어 있는 것이다. 노인들은 삶을 사랑한다. 모든 욕망의 대상이란 갖고 있지 않은 것이기 마련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갈구하는 바, 노인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에, 삶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 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제시문 (다)

나는 꿈에 지친 사람, 시냇물에 잠겨 비바람에 시달려온 대리석 트리톤*.

하루 종일 나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책에서 미인 그림을 발견한 듯 눈을 맘껏 즐겁게 하며

아니면 가려듣는 귀까지도 즐겁게, 그저 지혜로움에 만족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 들면 철이 드는 법.

하지만, 하지만, 이것이 내 꿈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아, 들끓는 젊음이 내게 있었을 때 우리가 만났었다면!

그러나 나는 꿈에 잠겨 늙어가네, 시냇물에 잠겨 비바람에 시달려온 대리석 트리톤처럼.

제시문 (라)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모두 '세월이 흘러감'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생각을 '욕망'과 연관시켜 비교하시오. (1,000자 내외, 50점)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모두 ‘세월이 흘러감’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생각을 ‘욕망’과 연관시켜 비교하시오. (1,000자 내외, 50점)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모두 세월의 흐름, 즉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제시문 각각의 기저에 있는 생각은 모두 차이를 보인다.

우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느끼는 욕망의 대상에 있어 (가)와 (나), (다)는 구분된다. (가)의 욕망은 남은 삶 그 자체에 대한 욕망이다. 노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이다. 또한, (가)에서 욕망은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발생한다. 즉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남은 삶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나)와 (다)의 욕망은 삶에서 성취되는 대상에 대한 욕망이다. 하지만 그 성취의 선후 관계에 대해 상반된 생각을 기저에 갖는다.

(나)의 욕망은 자신이 이미 성취한 수고의 산물에 대한 욕망이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러한 성취의 산물을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이를 원망하며 집착하고 있다.

반면 (다)의 욕망은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미리 성취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다. (다)의 화자가 욕망의 대상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로 세월이 흘러감을 지적하며, 이를 한탄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이를 알 수 있다.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원망하고, 이에 따라 욕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과 제시문 (라)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느끼는 욕망의 유무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라)로부터는 어떠한 욕망도 찾을 수 없다. (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원망하지 않는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태어나고, 장성하여 죽음에 이른다. 이 때 (라)의 노인의 그림은 가장 작고 초라하게 그려져 있으며,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여기로부터 (라)가 세월의 흐름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라)의 그림의 배치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무한한 순환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느끼는 욕망은 부질없는 것이 된다. (1,026자)